

ITU 신임 사무총장 '홀린 짜오(Houlin Zhao)' 인터뷰

지난 23 일, 2014 ITU 전권회의에서 제 19 대 신임 사무총장 선출

지난 23 일, 2014 ITU 전권회의 기간 중 열린 ITU 사무총장 선거에서 홀린 짜오(Houlin Zhao) 전 사무차장이 ITU 의 제 19 대 신임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다.

Q. 2015 년 1 월 1 일부터 ITU 의 수장을 맡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A. 제일 먼저 ITU 를 이끌어갈 새 지도부와 미팅을 가질 것이다. ITU 에는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새로 선출된 세 명(사무총장, 사무차장, 표준화총국장(ITU-T)과 재선된 두 명(ITU-R, ITU-D)을 포함하여 총 5 명의 고위선출직이 있다.

앞으로 4 년 간 우리 5 명이 서로 좋은 업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2014 ITU 전권회의에서 승인된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ITU 를 이끌 공통의 비전과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Q. 기술 영역에서 ITU 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해 왔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A. ITU 는 기술 전문 기구이다. 이것이 ITU 의 역사이고, 기술은 ITU 가 관장하는 전파통신, 표준화, 개발 세 영역에서도 우리의 중점추진 업무이다. ITU 가 반드시 기술 분야 전체에 유익한 스펙트럼 조정과 글로벌 ICT 표준 정립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전 지역 역량강화와 지식공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권위 있는 기술 전문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ITU 의 기술 책무 강화 외에도, ITU 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ICT 를 통한 사회-경제 발전을 주요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 활동도 펼쳐야 한다. 사무총장 재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ITU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Q. ICT 업계 전체의 발전을 더욱 폭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흥미롭고 새로운 발전이 일어날 분야는 어떤 분야들인가?

A. 우리가 현재 직면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이 항상 산업화된 국가나 대기업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ICT 네트워크 덕분에 시간적·공간적 장벽을 뛰어넘는 협력이 가능해졌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즉, 먼 오지에 있는 소규모 신생 기업이라도 ICT 산업에 차세대 혁신(the next big thing)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ICT 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ITU 가 Centres of Excellence 와 ITU 온라인 인터넷교육센터와 같은 우수 인재 양성 활동에 많은 노력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과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하이테크 파크' 플랫폼도 출범시키고자 한다. ICT 분야에 속한 많은 수의 기업과 산업들을 보면, 아직도 ITU 회원의 기반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의 ITU 참여를 격려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년 기업가들을 ITU 에 회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Q. 반대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사무총장직에 선출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지난 2 년 동안 ITU 회원들은 ITU 가 한 가족으로서 단합돼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표시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은 ITU 회원들의 놀라운 가족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선거의 결과는 회원국들이 ITU 의 현 추진 방향과 지도부의 역량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지지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앞서 지도부의 일원으로 있었던 경험 역시 나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ITU 를 이끌어 나갈에 있어서 회원들이 내게 보여준 신뢰의 표시에 보답하고 책임을 이행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Q. UN 포스트 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 ICT 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ITU 의 Connect 2020 ICT 목표와 2014 ITU 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활동들은 ICT 를 활용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 보건, 환경 지속가능성, 농업 관리와 기타 여러 분야의 당면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

Q. 2010 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전권회의에서 ITU 회원에 '학계'회원 카테고리를 새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ITU 의 회원 기반을 더 확대하려는 다른 계획이 있나?

A. 그렇다. 대학, 학술기관을 참여시켜 ITU 회원을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표했으며, 이미 60 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ITU 학계 회원이 되었다. ITU 의 필수적인 활동들에 전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연구원들과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학계 회원 가입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사무총장 재임기간에 학계 회원 네트워크가 200 개 이상의 기관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재능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리서치 커뮤니티가 생기기를 바란다.

Q. 향후 4 년간 ITU 는 예산과 재정 제약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A. 물론 ITU 는 효율 제고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관리자들과 스태프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 받아 생산성을 높이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비용 감소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ITU 의 역할은 변하지 않지만,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예산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ITU 의 회원들(정부, 민간 분야, 학계 회원들)이 ITU 에 가장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첫 사무총장 임기 동안 ITU 회원들이 ITU 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통신기술 접근성과 이용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지역별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신 통신 기술을 접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은 지역 사람들의 권익신장에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격차는 각국의 사회-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의 ICT 커뮤니티는 몇 가지 주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층, 장애인, 오지 거주민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과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같은 신기술 분야에 새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성, OTT(over-the-top) 플레이어들과 같은 시장 모델의 진화 등이다. ICT 커뮤니티가 이런 과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ITU 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http://www.itu.int/fr/osg/Pages/deputy-sg.aspx>

<https://www.flickr.com/search/?q=houlin%20zhao>